

鼠類 訟事型 寓話小説 〈鼠鼯傳〉 研究*

柳奇玉(우석대)

〈목 차〉

1. 緒論
2. 〈鼠鼯傳〉의 類型的 特性과 意味
3. 小説史的 位相과 價値
4. 結論

1. 緒論

이 논문은 학계에 처음 소개하게 되는 ‘鼠類 訟事型 寓話小説’ 〈鼠鼯傳〉의 類型的 特性과 意味를 고찰하고, 이를 위해 그간 소개된 同軌 작품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小説史的 位相과 價値를 규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鼠鼯傳〉은 주동인물인 다람쥐와 쥐를 의인화한 한문본 訟事型 寓話小説로 다람쥐를 주인공으로 설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다람쥐를 鼯鼠라고 명명하는 표현과는 달리 〈鼠鼯傳〉으로 표제를 삼고 있는데, 주인공인 다람쥐와 상대역으로 쥐를 주요 등장인물로 설정하고 있다. 특히 표제 바로 아래 ‘著作者 前進士

* 이 논문은 2009학년도 우석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徐達增 鎮安'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지금까지 소개된 同系 작품들 모두 작자를 알 수 없었던 점과는 달리, 작자가 명기된 유일한 이본인 점에서 작자 및 작품의 영향관계 등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고찰이 요구되는 중요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가로 18cm 세로 26cm의 雜用罽紙라고 표기된 세로로 된 편지식 형식의 종이에 비교적 정교하게 필사된 한문본으로, 각 면이 13행, 1행 22~28자, 총 14면 4,298자(제목포함) 분량의 비교적 장편에 속한다. 전반적으로 사건 구성과 주제의식은 물론 한문 문장의 문체 및 작자의 지적 역량과 문학적 역사가 뛰어나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작품으로 사료된다.

이 작품이 전하는 문헌의 前面 표제에는 堪錄 付各家讖書 末付鼠鼯傳으로 되어 있고, 맨 後面에는 鼠鼯傳附 鄭堪遊山錄及諸家秘訣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수록된 내용을 좀더 자세히 소개해보면, 첫 면 첫 줄에는 표제와는 달리 鄭堪遊山論으로 되어 있고 이어 李靑蓮三十五姓論 盧玉溪日記 玉龍子靑鶴洞訣 演數訣 耽羅付朝鮮 八道要訣 玉龍子訣 無學訣 南師古訣 柳謙菴秘錄 등 총 53면 분량의 堪錄 뒤에 이어 14면의 <鼠鼯傳>이 합철되어 있다.

그동안 소위 '鼠類 訟事型 寓話小說'로 한글본 <鼠同知傳>과 한문본인 <鼠大州傳>, <鼠獄記>, 한글 필사본인 <다람쥐전이라>, <다람의 소지> 등이 학계에 소개되어, 이들 이본의 성격 및 개별 작품의 변별적 특성과 의미에 대해서는 다양하고 괄목할만한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있는 실정이다.¹⁾

1) 대표적인 연구 결과를 일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정학성, 「우화소설연구」, 『국문학연구』 17, 서울대 국문학연구회, 1972.
 정출현, 「조선후기 향촌사회 변동과 우화소설」, 『민족문화사연구』 1, 1981, 162~192면.
 김평순, 『한국의인소설연구』, 새문사, 1987 338~371면.
 정홍모, 「조선후기 우화소설의 인물형상과 조선후기 향촌사회의 변모」, 『고전문학연구』 5, 1990, 239~259면.
 김중실, 「송사형 고전소설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1991.
 신경숙, 「송사형 우화소설」, 『어문논집』 30, 고려대, 1991, 101~130면.
 민 찬, 「조선후기 우화소설에 투영된 계층의 문제」, 『한국문화』 13, 1992, 209~235면.
 정출현, 「조선후기 우화소설의 사회적 성격」,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1992.
 정출현, 「동물 우화소설의 작품세계와 그 역사적 전개」, 『고소설사의 제문제』, 성우 소재영교수 환력기념논총, 집문당, 1993.
 김재환, 「한국 동물우화소설 연구」, 집문당, 1994.
 민 찬, 『조선후기 우화소설 연구』, 태학사, 1995.
 이현홍, 「송사소설의 사적전개」, 『한국서사문학사의 연구』 IV, 사계동편, 중앙문화사, 1995. 1451~1491면.
 이현홍, 『한국송사소설연구』, 삼지원, 1997.
 본고에서 <鼠鼯傳>과의 비교 대상으로 삼은 동계 작품의 텍스트는 신혜진의 '서류 송사형

이에 본 논문에서는 선행된 鼠類 訟事型 寓話小說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鼠鼯傳>의 사건구성과 유형적 특성을 이들과 비교 분석하고, 이를 통해 사건의 핵심 요소인 訟事의 발생동인과 갈등 양상 및 해결과정은 反映論의 관점에서 조선 후기 향촌사회의 변모양상과 의인화된 인물 형상화에 초점을 맞춰 그 의미와 주제의식을 고찰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를 종합하여 학계에 처음 소개되는 이 작품의 소설사적 위상 정립과 가치를 파악하는 데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2. <鼠鼯傳>의 類型的 特性和 意味

2.1. 事件構成과 類型的 特性

그동안 <鼠鼯傳>과 같은 ‘鼠類 訟事型 寓話小說’의 명칭에 대해서는 앞에 소개한 선행 연구성과를 통해, 鼠의 擬人類小說(김광순), 韓國動物寓話小說(김재환), 寓話小說(정학성, 민찬), 訟事型 寓話小說(신경숙, 정홍모), 訟事小說(이헌홍), 寓話小說(정출현), 訟事型 古典小說(김충실) 등으로 명명되어 왔다. 그밖에도 鼠類 寓話小說, 寓話型 訟事小說²⁾로 사용된 용례를 볼 수 있다.

<鼠鼯傳> 역시 寓話小說 혹은 訟事小說로 명명할 수 있는 유형적 특성을 공유하고 있는 바, 본고에서는 동물을 의인화한 송사소설 중 鼠類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 이를 포괄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편의상 우선 기왕의 ‘鼠類 訟事型 寓話小說’로 지칭하였지만, 그 특성상 간략하게 訟事小說로 그 갈래적 성격을 설정해 볼 수 있다.

이헌홍은 송사소설의 개념과 갈래적 성격에 대하여, 訟事小說은 송사모티프

우화소설’을 그 대본으로 삼고자 한다.(신해진편역, 『서류 송사형 우화소설』, 보고서, 2008.) 이외에도 김광순은 <鼠勇傳>, <鼠翁傳>, <鼠獄說>을 散佚된 것으로 보았으나(김광순, 『한국의인소설연구』, 새문사, 1987, p.344), 이중 <鼠獄說>은 <鼠獄記>를 달리 부르는 명칭으로(신해진편역, 33면 참고) 나라 창고에 보관중인 양곡을 수년간 훔쳐 먹고 살다가 발각되어 갖은 변명으로 자신의 죄를 남에게 전가시키려다 결국 상제에게 능지 처형된다는 사건구성인 점과 작품 유형상 판이한 차이를 보임으로 구체적인 비교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주신 김해정교수님께 이 자리를 통해 감사드립니다.>

2) 주영호, 「서류 우화소설 연구」,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 논문, 1995.
한아름, 「서류 우화소설연구」, 서강대 교육대학원 논문, 2006.
김윤희, 「우화형 송사소설 연구」, 경희대 교육대학원 논문, 2007.

가 작품 전체의 플롯을 주도하는 소설로, ‘송사사건의 발생, 처리과정, 판결과 그 결과에 대한 반응’ 등 수수께끼적 과제부여와 해결이라는 일관된 고리로 유형화할 수 있는 구조상의 유사성을 필수적으로 지니고 있으며, 나아가 형성적, 효용적 유사성과 함께 담당층의 갈래의식적 유사성으로 인해 조선 후기에 적극적으로 창작되고 선호한 경향을 보이는 독자적 유형군으로 분류한 바 있다.³⁾

<鼠廳傳>은 다람쥐가 근면 성실하게 모아놓은 식량을 쥐가 몰래 훔쳐가자 다람쥐가 소지를 올려 관에 제소하게 되는 송사사건의 전말을 다루고 있는 점에서, 기왕에 소개된 <鼠大州傳>과 일면 유사한 면모를 보이지만, 그 세부적인 서사 전개 양상을 보면 상호 동이점을 통해 그 특성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이제 <鼠廳傳>이 본 논문을 통해 처음 소개되는 작품인 만큼 여타 이본과 상호 비교 고찰하는데 일조하고자, 이 작품의 사건 전개양상을 주요 단락별로 구분하여 그 경계를 보다 상세하게 제시해 보면 아래와 같다.

- <가> 1. 巴州 杜宇의 남쪽에 廳僉知가 살고 있는데 청렴하고 가난하여 바늘하나 세울 발도 없었다. 처첩과 자제들을 데리고 산을 넘고 골짜기에 들어가 한 칸 굴집을 짓고 부지런히 바쁘게 일했지만 겨우 바람과 비를 가릴 뿐이었다. 이에 동서로 흩어져 바람이 불어 떨어진 열매를 주워 간신히 목숨을 보전하였다.
2. 하루는 자제들을 모아 놓고 곧 다가올 歲暮와 嚴冬을 대비하여 현명하고 근면하게 도모할 것을 강조하며, 5~6명의 자제들과 함께 주야를 잇고 상수리와 알밤을 주워 다섯 섬 다섯 말을 모은다. 곳간 문단속을 잘못하여 도둑맞지 않도록 자제들에게 미리 경계하여 잘 숨겨둘 것을 당부한다.
- <나> 3. 홀연 黃牛峽에 사는 狙同知의 노예가 편지를 가지고 와서 익일 狙同知의 16세 된 딸이 사돈을 맺는 잔치에 참여할 것을 전하자 이에 허락하는 편지를 보낸다.
4. 다음 날 일찍 집을 나서 성대한 잔치에 참여하여 결국 술에 취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붙잡혀 새벽녘에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
5. 새벽에 귀가해 보니 간밤에 감취 둔 밤과 상수리 열매를 모두 도둑맞고 아내가 울면서 탄식하고 원망하는 소리를 듣는다.

3) 이현홍, 『한국 송사소설 연구』, 삼지연, 1997, 394~399면.

<다> 6. 이에 늙은 다람쥐는 자제들을 거느리고 발자취를 따라 黃牛峽 白馬津 劍閣에 사는 鼠參奉을 찾아가, 맹인에게 거북점을 쳐보니 卦가 鼠參奉에게 멈추고 망령되이 움직이지 않았음을 말하고, 아니 뎌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는 법이라며 흠쳐간 상수리와 밤을 다소라도 내어주기를 간청한다.

7. 반면 鼠參奉은 원래 본성이 착하고 이제 나이도 많아 집에서도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므로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았다고 변명한다.

8. 이어 鼠參奉의 무리들이 적반하장으로 鼯僉知를 무수히 구타하자 자손들이 애걸하여 큰 화를 면한 채 부축하여 돌아온다.

<라> 9. 鼯僉知는 山君 호랑이가 없는 골짜기에서 정무를 맡고 있는 刀州의 살쟁이 領將에게 所志를 올려, 산 임금에게 밤을 바치며 자칭 參奉이라 칭하는 鼠參奉의 교활하고 간악한 강도짓과 흠쳐간 정황 및 자신의 원통하고 억울한 사정을 날날이 아되며 법에 따라 올바르게 처단해 줄 것을 간청한다.

10. 관부에서는 差使 兎月仙으로 하여금 鼠參奉을 급히 잡아오게 한다.

11. 鼠參奉은 살쟁이 領將에게 아첨하며 자칭 산중 士大夫로 그간 文官 장원, 訓蒙主簿, 翰林學士, 巫峽通判, 杜宇領將이 되었고, 玉堂을 관장 하며, 宗廟 參奉을 제수 받았음을 말하고, 대대로 청빈하게 簞瓢陋巷을 즐기며 백성을 구제하는 일만 알았기에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았다고 변명한다. 오히려 鼯僉知의 고발이 날조된 것이라고 誣告하여 鼯僉知의 간교하고 교활한 죄상을 각별히 처단하고 법률에 의거 변방으로 축출하고 자신의 원한을 씻어주기를 청한다.

12. 令將은 더 이상 옳고 그름을 그날 중으로 따지어 분별하지 않고 鼠參奉과 鼯僉知를 옥에 가두고 재판을 다음 날로 미룬다.

<마> 13. 鼠參奉은 자신이 불리함을 알고 살쟁이 領將의 친구인 여우에게 많은 뇌물을 주며 자기의 뜻대로 말을 하도록 한다.

14. 다음 날 令將은 가둬 둔 둘을 잡아들여 鼠參奉은 대대 士族으로 한 번도 죄를 범한 바 없으나 鼯僉知는 지극히 미천한 놈으로 거짓 역설을 지어 양반에게 누명을 끼치고 선비에게 악을 행하였다고 치죄한다.

15. 令將은 鼠參奉을 상좌에 앉히고 그동안 山君에서 정무를 맡은 지 오래 되었으나 아직 높으신 이름을 듣지 못하고 송사를 통해 늦게 만나 뵈게 됨을 사과한다.

16. 使令과 軍牢들에게 붙잡혀 型板에 매인 鼯僉知는 명령을 받드는 자들의

위엄 앞에 혼비백산하여, 가슴속에 쌓인 원통함을 전달할 방도가 없어
어쩔 수 없이 팔과 창자 살이 문드러지도록 곤장을 맞고 하옥 당한다.
다람쥐의 자손들은 동서로 걸식하며 아침저녁으로 살길을 찾는다.

17. 30일이 지나 俞將은 廳僉知를 다시 잡아들여 미천한 존재로 귀인을
능멸한 죄. 거짓을 꾸며 관청에 고소한 죄, 鼠參奉을 도적의 흉계에
빠뜨린 죄를 들어 褒斜 子午谷 삼천리에 유배지를 정하고 압송한다.
집안 권속들은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고향에서 살아갈 때에도 굶주림
과 추위를 면하지 못했는데, 만리타향에서 의지할 곳 없이 실 같은
목숨도 보존하기 어려움을 통탄한다.

<마> 18. 廳僉知가 친척들과 하직하고 유배지를 향해 한 달을 지나 褒斜峽에
이르니, 풍속은 온순하고 인정이 두터우며 인심은 예스럽고 질박한데,
흉년에는 곤궁한 백성들을 도와주고 급한 자를 구제하는 일이 많았다.

19. 어느 덧 반년이 지난 어느 날 山君殿下가 그곳 골짜기를 순시하게 된다.

20. 이에 廳僉知가 누명을 쓰고 그곳에 유배 오게 된 원통하고 억울함을
씻을 수 있도록 변론하고자 소지를 올려, 도적질을 일삼는 鼠參奉의
죄상과 뇌물로 살쟁이 俞將과 挾奸하여 자신에게 거짓 누명을 씌워,
자신은 억울함을 품고 분통함이 쌓였어도 어디에도 하소연할 곳이
없었으며, 紀綱의 紊亂, 法制의 乖廢, 소인배와 간신들이 권세에 의지
하고 재화와 뇌물이 공공연히 행하여짐을 山君殿下께 낱낱이 아뢰며,
올바른 판결로 옥석을 구별하고 흑백을 분별하여 줄 것을 아뢴다.

<사> 21. 山君殿下는 訴狀을 보고 堯舜시대의 擊壤歌와 南薰曲처럼 이상적인
정치와는 달리 자신이 임금이 되어서는 신하들이 공적인 일을 잘 집행
하지 못하고, 시골엔 좋은 풍속이 없고, 의심과 두려움을 품고, 법망이
느슨하고 영성하여 社稷을 편안히 하지 못하고, 변화가 금수에 미치지
못함을 피력한다.

22. 山君은 劔閣을 만들어 鼠參奉의 목에 칼을 씌우고 발에 사슬을 채워
잡아들여 죄를 묻고, 刀州 俞將은 削奪官職하고 변경으로 유배를 명한
다. 이어 鼠參奉의 죄상을 하나하나 訊問하여 刑杖으로 깨어묻고, 주
리를 틀고, 장형으로 자복을 받아 극형을 내려 가죽을 벗기고 살을
발라 나눠주고, 여우 등은 훗날 관습의 증거로 삼아 무리 새끼들을
北海상에 유배시킨다.

23. 山君은 廳僉知에게 명하여 巫峽通判을 삼고, 식량 이천 섬의 상수리와
밤을 주니 가산이 점점 넉넉해지고 永世토록 본보기로 삼도록 하였다.

24. 그 후 7명의 鼠類들이 번성하여 다시 남의 집에 도둑질하는 근심거리
를 만드니, 비록 산 임금의 위엄과 고양이 장수의 武勇으로도 어찌
할 수가 없었다.

<아> 25. 城 안에 있는 여우같은 소인이나 祠堂의 쥐와 같이 임금 곁에서 알랑
거리는 간신들이 시골구석에 침해하여 욕을 보이고, 평민들을 베고
토벌하며, 나라의 기강을 깨뜨리고, 陽橋의 무리들처럼 관가의 우두
머리와 결탁하여 한 통속이 되는 것들과 똑같이, 힘 있는 아전들은
너물을 행하고 법을 왜곡하여 무단히 그릇된 것을 꾸미니 鼠類와 다를
바 없다고 논평한다.

이상의 사건 전개 양상을 종합해 보면, 송사 사건의 발단 과정과 해결과정
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전형적인 송사소설 유형의 공통된 서사구조를 공유하
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예컨대 <가> 1~2는 시공간적 배경과 의인화된
주인공 廳僉知의 위인 됨. <나> 3~5는 송사사건의 발단인 식량 도난 사건의
발생, <다> 6~8은 범인 색출을 위한 피의자 탐문과 억울하게 구타만 당하고
귀가, <라> 9~12는 소를 올려 피의자인 鼠參奉을 잡아들여 하옥, <마> 13~
17은 1차 판결로 鼠參奉의 뇌물공여와 무능한 살쟁이 守將의 오판으로 廳僉知
의 유배지 압송, <바> 18~20은 유배지의 인정세태와 풍속 및 생활, 山君殿下
의 순시와 재 상소, <사> 21~24는 산군전하의 현명한 2차 판결과 後系, <아>
25는 편집자적 논평부분으로 주제의식이 부각된 부분이다. 따라서 <가><나>
는 사건 발생 양상, <다><라><마><바><사>는 송사의 제기와 사건 해결 양
상, <아>는 문제해결의 결말구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송사구조를 보면, 1)송사의 발단과 동인(過冬用 식량 도난 사건 발생) - 2)
대립 당사자의 갈등(절도 피의자 鼠參奉의 범죄 행위가 단순히 은닉된 상태에
서 피해자 廳僉知와 피의자 鼠參奉의 대립) - 3)송사의 제기(범인 색출을 위한
탐문, 廳僉知의 소지, 鼠參奉의 변명과 뇌물 공여를 통한 은폐기도, 鼠參奉이
廳僉知를 억지 모함) - 4)판결 1(살쟁이 守將의 부정과 무능으로 인한 오판,
廳僉知의 억울한 귀양), 판결 2(巡狩하던 山君殿下가 廳僉知의 억울한 사연 청
취, 鼠參奉 문초와 자백, 守將, 관원 등 위증자 처벌, 廳僉知의 伸冤 및 부귀영
화) 등으로 사건이 전개된다.

이상과 같이 단순히 ‘양식다툼 - 송사 - 판결’이라는 鼠類들의 소송사건을

소재로 한 점에서는 동계 작품들과 倣似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사건의 발단과 결말까지의 전개양상 및 세부적인 처리과정에서 판이한 몇 가지 특징적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우선 기왕에 소개된 <鼠同知傳>의 다람쥐는 성품이 간악하고 위인이 不仁하며 가세 빈한하기 때문에 三旬九食도 어려운 형편이다. 이에 다람쥐는 양식을 鼠大州한테 구걸하며, 재차 구걸을 하자 거절당한 다람쥐가 愾하고 山君에게 嚴冬을 보전하기 위해 저축한 糴米 수십여 석을 탈취당하고, 무수히 난타당했다고 거짓으로 허위소송을 하여 설분을 하고자 하는 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이처럼 다람쥐가 鼠大州에게 은혜를 입고, 재차 도움을 청했을 때 거절당하자 이전의 은혜를 잊고 배은망덕하게 鼠大州를 白虎山君에게 허위로 소송하지만, 현명하게 是非曲直을 가려 간악한 다람쥐를 처벌하는 내용인 점에서 사건구성상 판이한 차이를 보여준다.

결국 허위 고발한 다람쥐를 嚴刑 定配시키고 鼠大州를 放送하며 마음 착한 鼠大州는 다람쥐를 불쌍히 여겨 동정을 베푸는 점이 특색이다. 이를 통해 간악하고 不仁하며 나태한 다람쥐에 반해서 선량한 서대주의 仁厚하고 아량 있는 인간성을 풍자하고 있다. 따라서 우선 비교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다. 이 작품은 ‘서대주의 잔치 - 다람쥐의 구걸 - 다람쥐의 부당한 소송 - 서대주의 변론 - 백호산군의 정당 판결’의 사건구성으로 분석된다.

한편 <鼠大州傳>은 극심한 흉년과 임박한 겨울 추위에 鼠大州가 甯南州의 精粟을 훔치자 타남주가 主倅에게 소송을 제기했으나 판관인 主倅가 鼠大州의 뇌물공여와 巧言에 속아 무고한 甯南州를 억울하게 定配시키는 내용으로, 판관의 무능과 관리들의 부정부패, 양반사회의 부패상과 비위를 풍자한 작품이다.⁴⁾ 그 결과 ‘서대주의 약탈 - 타남주의 정당한 소송 - 서대주의 무고 - 主倅의 부당 판결’로 전개된다. 따라서 <鼠大州傳>은 소위 단순한 사건의 발생과 그 해결로 완결되는 ‘단순형’, 그리고 피소자가 그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패소하는 결말구조의 ‘冤抑型’ 구성이라 할 수 있다.⁵⁾

<鼠廳傳>의 경우, 전술한 살랭이 兪將의 1차 판결에서 억울하게 패소하는

4) 김광순, 『한국의인소설 연구』, 새문사, 1987, 349~350면.

5) 이현홍, 『한국송사소설연구』, 삼지원, 1997, 178면, 198면에서 단순형 冤抑型을 참조할 수 있다.

부분까지 만을 볼 때에는 ‘단순형’ 구성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鼯兪知의 식량을 鼠參奉이 탈취하자 이를 탐지하고 찾아가 무수히 구타만 당하고 돌아와 살 썩이 命將에게 소장을 올리지만, 역시 뇌물과 무능한 판결 결과 定配를 당하는 17까지의 구성은, 일견 상기 <鼠大州傳>과 같은 ‘冤抑型’과 유사한 사건구성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鼠鼯傳>은 그 후 피소자의 억울한 문제가 다시 두 번째의 판결과정을 거치는데, 또 다른 판관에 의해 판결 결과가 역전되며 결국 문제가 해결되는 내용이 상당 부분 부연되고 있는 점에서 그 변별성을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유배지의 도착과정과 유배지의 인정세태 및 풍속이 소개되고, 이후 주체와 밀접하게 연관성을 맺고 있는 의미기능 단락이 비교적 상세하게 부연된 채, 山君殿下의 순시에 맞춰 재 상소를 올려 억울한 사정이 궁극적으로는 해결되며 맺힌 한을 풀게 되는 ‘伸冤型’의 결말구조를 지니고 있다. 결국 동일한 사건을 두고 두 번의 판결과정을 거치며 전개되는 ‘중복형’ 구성이라 할 수 있다.⁶⁾ 따라서 지금까지 소개된 서류 송사소설들과는 달리 긴장감과 극적 구성을 배가시킨 창의적인 사건구성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세부적인 묘사에 있어서도 독자적인 특성 및 적지 않은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으나 지면관계상 구체적인 비교는 별도로 미루고 그 특징적인 차이만을 간단히 소개해 보기로 한다.⁷⁾

<鼠鼯傳>은 우선 ‘사건의 발단 부분’에 있어서 鼯兪知가 ‘黃牛峽 狙同知의 딸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고 이에 참석하여 盛饌과 술에 취해 새벽녘에야 귀가하게 되는데, 그날 밤 식량을 도난당하게 된다. 물론 이것은 <鼠大州傳>에서 鼠大州가 대공을 세운 공로로 벼슬을 제수 받고 성대한 잔치가 배설되며 다람쥐가 이를 찾아가는 사건구성과는 그 궤를 달리한다. 그 후 ‘범인 탐색과 추적 체포 과정’에 있어서도 큰 차이점을 보여주는데, <鼠鼯傳>의 경우 앞의 6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黃牛峽에 사는 鼠參奉을 탐문하여 찾아가서 ‘맹인의 거북점’을 운운하며 鼠參奉이 가져간 것으로 심증을 굳히고 범인을 탐색하는 해결 양상을 보여주는 점에서 기왕의 작품들과 변별되는 특색이라 할 수 있다.⁸⁾ 특히 <鼠大州傳>의 경

6) 이현홍, 『한국송사소설연구』, 삼지원, 1997. 181면, 198면에서 중복형 伸冤型을 참조할 수 있다.

7) <鼠鼯傳>에 명기된 작가에 대한 고증 및 기왕에 소개된 서류 송사형 우화소설과의 이본적 특성, 제반 인용고사 및 세부적인 묘사에 있어서 확인되는 동이점과 변별적 특성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별고를 통해 상세히 다루고자 한다.

우처럼 범인을 체포하는 과정에 있어서 鼠大州가 거처하는 장황한 집안 묘사나 잡으러 온 사령들에게 성대한 접대와 뇌물로 의관을 정제하고 말을 타고 화려한 차림으로 관문에 도달하는 과정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그 후 억울하게 무수히 구타만 당하고 돌아와 山君 대신 무능한 살쥬이 丞將에게 所志를 올리지만 패소하고 定配를 당한 후, 때마침 山君殿下의 巡視 때 다시 所志를 올려 廳僉知의 원한이 모두 해결된다. <鼠同知傳>의 경우 소송 사건의 是非曲直을 올바르게 판단하는 유능한 白虎山君이 판관이고, <鼠大州傳>의 판관은 主倅로 송사를 올바로 판단하지 못하는 무능한 재판관을 볼 때, <鼠廳傳>은 이 두 가지 유형을 복합한 ‘중복형’ 구성으로 사건구성 및 인물 형상화와 주제의식에 있어서도 색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전술한 바 이 작품은 善人형의 다람쥐를 주인공으로 삼고 쥐를 상대역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 惡人형의 鼠大州를 주인공으로 삼은 <鼠大州傳>과는 상반되며, 송사사건의 발생 양상과 세부적인 처리과정의 치밀하고 복합적인 구성 면에서도 동계 작품들과 변별되는 전개양상을 보여준다.

이현홍은 <鼠大州傳>의 근원이 될만한 설화로 <다람의 소지>⁹⁾와 같은 비슷한 유형의 설화들이 소설화 되었을 가능성을 피력하고, 능력 있는 문필가의 손에 의해 가림주구에 허덕이는 백성들의 고난상, 지배층의 방탕한 생활과 허례의식, 지방 관리들의 부패상 등 조선후기의 시대상을 효과적으로 반영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¹⁰⁾

특히 여기에서 주목되는 점은 그동안 국문필사본으로 전하는 <다람의 소지>가 다람쥐의 소장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어 그 소지를 본 사또가 鼠大州를 잡아오게 하자 鼠大州가 사령에게 뇌물을 주고 공훈의 자손임을 자랑하며, 그 후 형방과 옥리들이 鼠大州의 편에 서서 날이 저물었다는 이유로 다음 날에 장문할 것을 권하여 허락을 받고 鼠大州를 하옥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점이다. 이에 그 분량이나 내용상 설화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이런 유형

8) 식량 도난 발단 부분은 <鼠大州傳>의 경우, 흉년과 기근으로 鼠大州가 군서들을 모아놓고 타담주의 양식을 탈취할 것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점, 그 결과 정황과 심증 위주의 판결을 보이는 점(이현홍, 전게서, p.165) 등 세부적인 면에서는 판이한 차이를 보여준다.

9) 최승범 校註, <다람의 소지>, 『문학사상』 28, 문학사상사, 1975, 419~423면.

10) 이현홍, 『한국 송사소설 연구』, 삼지원, 1997, 75~78면.

의 설화들이 구비전승 되면서 그 후 <鼠大州傳>과 같은 작품이 새롭게 창작된 것으로 보아 왔다.

한글 필사본인 <다람쥐전이라>¹¹⁾ 역시 강원도 금강산에 있는 다람쥐가 부지런히 모은 알밤을 鼠大州에게 잃고 소지를 올려 鼠大州를 잡아오게 하여 심문하자 청백한 공훈의 자손임을 들어 다람쥐를 무고하게 모함하여 鼠大州는 방면되고, 오히려 다람쥐는 패소하여 사대부 양반을 능욕한 죄로 곤장 팔십대와 함께 억울하게 함경도 갑산으로 귀양 가서 적소에서 죽게 되니 자손들이 땅극에통해하는 내용으로 끝나고 있다.

이에 반해 <鼠廳傳>은 단순히 다람쥐를 주인공으로 설정한 점에서는 동일하나 이들 한글본과는 달리 장편의 한문본으로, 이처럼 전래한 서류 설화나 소설들과는 달리 단순형 사건구성이 아니라 사건이 중복되고 판결이 역전되는 가운데 보다 치밀하게 재구성된 점에서 진일보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서류의 소송사건을 통해서 당시 인간사회의 부패상이 한층 부각되고 있는데, 향촌사회의 계층 갈등과 사회의식이 심도 있게 반영됨은 물론 의인화된 인물형상화의 의미와 주제의식 역시 강화되어 있는 점에서 소설사적 위상이 주목되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2.2. 鄉村社會의 葛藤樣相과 意味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鼠廳傳>의 서사구조를 보면, ‘송사사건의 발단인 식량도난사건의 발생으로 인한 대립 당사자의 갈등과 송사의 제기 및 판결결과가 역전되는 두 차례의 판결을 통해 송사 문제가 해결’되는 사건 전개 양상을 보여준다. 그 결과 의인화된 주동적인 인물들의 갈등 양상과 대 사회적인 의미가 사실적으로 반영되는 가운데, 소지에 언급된 피해자의 억울한 사정과 피의자의 억지 변론, 판결 결과 및 작자의 논찬부 평설을 통해 作意와 主題意識이 부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사건의 발생동인과 사건의 추이, 등장인물의 성격과 갈등 양상, 판결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반응을 통해, 작품에 반영된 사회적 의미와 비판적 주제 의식을 구체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11) 김재환, <다람쥐전이라>(유탉일본), 『한국 동물우화소설 연구』, 집문당, 1994, 292~295면.

선행 연구 결과에 의하면, 송사소설의 발생시기를 대체로 18세기, 18세기 중엽 이후, 18세기에서 19세기까지로 추정하고 있다.¹²⁾ 나아가 대체로 서류 송사소설이 지니고 있는 송사사건의 발단이 ‘거듭되는 극심한 흉황과 엄동’을 배경으로 비롯되며, 그 결과 당대 ‘향촌사회라는 삶의 공간’에서 ‘경제적 측면’과 ‘계층적 성격’을 심도 있게 조망하여 심도 있게 규명하여 왔다. <鼠廳傳> 역시 비교의 편의상 이를 토대로 의인화된 등장인물의 형상화 양상과 이에 나타난 향촌사회의 갈등 양상과 의미를 반영론적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우선 이 작품의 주동인물인 주인공 廳僉知(다람쥐)와 그 상대역인 鼠參奉(쥐)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어 제 1, 2의 판관(삼랭이 守將, 山君殿下)과 부수적인 인물들의 의인화 형상과 이에 내포된 사회상과 의미 파악이 중요한 관건이라 할 수 있다.

문면에 나타난 표현대로라면 廳僉知는 조선조 최 말단직의 품관이다. 물론 나이 많은 남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로 작품 전반을 통해 보면, 狙同知의 노비가 혼인 잔치에 초청하는 편지를 전하러 와서 문밖에서 불렀던 守監이라는 호칭 역시 정3품과 중2품의 벼슬아치가 아닌 동일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도입부의 시공간적 배경을 보면, 巴州 杜宇 남쪽에 살고 있는 廳僉知는 살림살이가 청렴하고 가난하여 바늘 하나 세울 받도 없었으며, 세상살이의 어려움이 蜀道보다 심하다는 표현을 통해 이를 재차 확인 할 수 있다.¹³⁾ 그렇지만 자체들을 모아놓고 過冬용 양식을 마련하는 장면을 보면, 근면을 강조하며 대부호인 陶朱의 부귀와 趙孟의 귀중함도 헛되이 바라지 않고, 향락과 사치의 상징인 王凱와 石崇도 부러워하지 않는 지극히 寒微하지만 근면성실하고 淸貧한 인물로, 남의 힘을 빌려 얻은 人爵의 귀함을 뜯구름처럼 허망하게 여기는 인물이다. 처첩과 자체들을 거느리고 산골짜기에 들어가 근근이 연명하며 입에 풀칠이라도 할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엄동설한의 겨울을 나기 위한 양식

12) 김충실, 전계 논문, 128면.

13) 巴州 杜宇의 명칭을 통해 <鼠廳記>에 나오는 죽은 皇帝의 혼이 된 杜鵑과 巴峽(巴山)을 변용한 듯 보인다. <鼠廳記>에는 李白이 지는 蜀道難의 시가 인용되고 있다. (신해진편역, 전개서, 156면 참조) 蜀道는 四川省으로 통하는 극히 험준한 길이며, 蜀의 棧道라는 뜻으로 처세하기 어려운 상황을 지칭한다. 그밖에 建溪라는 水名이나 巫峽 등 작품 전반이 중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후반부에 나오는 劔閣이라는 지명도 劉備가 일으키고 諸葛亮이 지켰으나 허무하게 무너진 蜀漢과 後主 劉禪과 관계된 지명임을 볼 때, 이를 문학적으로 변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을 미리 부지런히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선조 후기 몰락한 양반층 내지는 미천한 하층민의 유랑적인 삶을 반영하고 있는 듯 보여 진다.

반면 鼠參奉은 문면상 종9품직으로, 봉건 양반토호의 의인화된 형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鼠大州傳>의 경우처럼 극심한 흉년인데다 매서운 겨울 추위까지 닥쳐 겨울나기 양식에 대한 해결방안을 의논하고, 치밀한 계획아래 군센 50여 명을 훈련시켜 다람쥐의 곡식을 강탈하는 구체적인 장면은 나타나지 않지만, 식량을 절취한 피의자 신분에서 행해지는 교언이설과 갖은 변명을 통해, 부패한 관권과 결탁하여 이들의 비호를 받으며 하층민을 착취하는 향촌 사회 지방 토호의 모습을 여실히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鼠大州傳>에 나타난 鼠大州의 인물성격에 대해서는 논자마다 의견을 달리하여, ‘평민 중 경제적으로 성장한 요호층의 형상’, ‘상당한 부를 축적해 양반으로 신분을 성장시킨 평민’, ‘조선 후기 향촌 사회에 정착하여 토호로써 재산과 권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사족집단’, ‘토호, 양반, 몰락양반, 무뢰한, 요호’ 등으로 다양하게 파악되어 왔다.¹⁴⁾ <鼠鼯傳>의 경우 鼯僉知가 양식을 잃고 피의자 鼠參奉을 찾아가지만 구타만 당하고 돌아와 살랭이 영장에게 소지를 올려 差使 兎月仙으로 하여금 잡혀가게 되자, 자신을 변명하는 아래 장면을 통해 의인화된 인물형상화 양상과 의미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몸은 비록 노둔하나 천은이 망극하여 15세엔 향시 회시 정시 문과에 장원 급제하고, 20대에 비로서 훈전주부에 들어갔고, 결혼해서는 한림학사가 되었고 노년에는 무협의 통판이 되었습니다. 대부의 나이에 두우의 영장이 되었습니다. 그 후 산군전하께서 신의 공력이 많음을 기특히 여기고 옥당을 관장하게 하였으며 특별히 종묘 참봉을 제수하여 소전의 은혜를 입게 하였습니다.¹⁵⁾

이처럼 宗廟 ‘參奉’에 제수되는 가운데, 孟子에 나오는 恒產 恒心을 응용하여 일정한 생산이 없으면서도 항상 떳떳한 마음이 있는 자는 오직 선비만이

14) 신경숙, 전계 논문, 114면. 정출현, 「조선후기 우화소설의 사회적 성격」,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1992, 139~152면.

민 찬, 「서대주전의 전승경로와 사회적 성격」, 『인문과학논집』 17, 대전대 인문과학연구소, 1992, 34면. 민 찬, 전계서, 147면, 148~174면 참조.

15) 小臣才能魯鈍 天恩罔極 成童之年三冠省試 加冠之年始入訓蒙主簿 有室之年爲翰林學士云 老之年爲巫峽通判 大夫之年爲杜宇領將 後山君殿下以臣奇之功力最多 管玉堂特除宗廟參奉 受疏傳之惠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자칭 산 중 士大夫라고 칭하는 내용이 나온다. 아울러 十二支 가운데 으뜸인子を 본떠, 뛰어난 문벌 가운데 으뜸기는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아무도 자신의 짝이 될 수 없음을 말하며, 대대로 골짜기에 거처하면서 簞瓢陋巷을 즐기며 여생을 의리를 좇아 살고자 했기 때문에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았다고 변명하면서, 감히 같은 고향의 士大夫에게 어찌 악을 행할 수 있겠느냐고 변명한다.

대대로 골짜기에 살아가면서 점점 거부로 칭하고 묵은 곡식이 넉리어 붉게 썩어질 정도입니다. 무렵에서 늙음을 지키며 살고자 했습니다. -중략- 안자의 극간을 듣고 경공의 흥폐를 부질없이 여기고 가산을 돌보지 않고 다만 백성을 구제하는 것만을 알았기 때문에 가도가 청빈했습니다. 그러나 단포누항을 즐기며 문양의 설강하는 것을 업으로 삼고, 남은 나이를 오직 의리를 좇아 마치려 하였는데 하물며 주인이 있는 물건을 훔치겠습니까? 감히 같은 고향 사대부에게 악을 행하겠습니까?¹⁶⁾

이상에서 살펴본 비와 같이 같은 향촌 사회 계층간의 갈등 양상과 부패한 지배구조에 대한 사회적 비판적 의미가 길게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대립갈등 속에서 山君(호랑이)이 없는 처지에서 정무를 오랫동안 맡아온 살팽이 영장은 바로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날로 판결을 미루게 되는데, 그 사이에 鼠參奉은 令將의 친구인 여우에게 기름진 꿩 50마리와 닭 100마리를 뇌물로 주며 令將에게 부탁하여 자신에게 유리하게 청탁하도록 한다. 그 결과 부패하고 무능한 영장의 오편으로 鼠參奉은 방송되며, 廳僉知는 지극히 미천한 몸으로 거짓 억설을 만들어 양반에게 누명을 끼치고 선비에게 악을 행했다는 죄명으로 살이 문드러지도록 억울하게 30대의 곤장을 맞고 목에 칼을 씌운 채 하옥되며, 다시 30일이 지나 영장의 그릇된 판결 결과로 廳僉知는 결국 褒斜 子午谷 三千里에 유배지를 정하고 압송된다. 이처럼 먹는 것을 욕심내는 자들이 그 이익됨을 즐겨 '한자를 곤게 하기 위해 여덟자를 굶히는 격'으로, 무능하고 부패한 판관과 중간자는 물론 이를 추종하는 휘하의 인물군상들을 생동감 있게 등장시켜 무

16) 世居洞中 稍稱巨富 陳穀紅腐矣 欲作巫峽之守老 -중략- 聽晏子之極諫 散景公之興發 不顧家產而 但知濟民 是故家道清貧 然樂陋巷之瓢飲 業汝陽之設講 以終吾年壽惟義理 況儉有主之物乎 渠敢行惡於一鄉士大夫

엇보다도 향촌사회와 통치체제의 부패상이 부각되고 이를 비판하고자 하는 사회적 의미가 심도 있게 함축되어 있음이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또 다시 한 달을 걸려 이르게 된 유배지의 이상적인 모습과 그 후 다시 반년이 지나도록 어디에도 하소연 할 길 없이 억울하게 정배되어온 경위를, 때마침 山君殿下의 순시에 맞춰 저간의 사정을 재 상소하여 당대의 부조리를 낱낱이 알리는 가운데, 1차 판결을 역전시켜 억울한 문제가 말끔히 해소되는 두 번째의 판결결과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 달을 지나 포사협에 이르니 풍속은 온순하고 인정이 두터우며 인심은 예스럽고 질박한데, 혹 한 말의 물로 수레바퀴가 지나간 자리에 고인 물에 시는 고기를 살려내고, 예상의 굶주림을 구휼하고 흉년에는 곤궁한 백성들을 도와주고 급한 자를 구제하는 일이 많았다.¹⁷⁾

이처럼 전술한 부정적인 사회상과는 대조적으로 涸轍之魚 翳桑之餓와 같은 고사를 인용한 이상적인 유배지의 모습은 전술한 향촌사회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오히려 긍정적으로 묘사되며, 나아가 廳僉知의 소지를 통해 당대 향촌사회의 부패상이 사실적으로 드러나는 가운데 이상적인 사회와 통치체제를 염원하는 기대심리가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나라가 나라 됨은 백성으로써 근본을 삼고, 왕이 왕 됨은 법도로써 정치를 행하는 것입니다. 법도로 공평하게 정치를 행하면 백성들의 억울한 옥사가 없을 것입니다. -중략- 지금 기강이 문란하고 법제가 어그러지고 피폐하여, 임금 곁에 있는 소인배들과 알랑거리는 간신들이 권세와 강함에 기대하고 의지하여, 재화와 뇌물이 공공연히 행해지며, 약하고 무죄한 자로 하여금 헤아리기 어려운 구덩이에 빠지게 하여, 원한이 맺히도 어디에도 하소연 할 수 없습니다.¹⁸⁾

효는 밝은 정사 아래 잘 다스려지는 법입니다. 아주 작은 변변치 못한 놈들도 흉한 짓을 행하고, 포악함에 의지하며 강함을 등에 지고 약한 자를 능멸하고, 권세를 가장하여 가난한 자를 속이고, 여우처럼 아첨하여 재물을 탐내고, 이익을 보면

17) 過一月之中 至褒斜峽 俗淳厚人心古朴 或以斗水之資 活涸轍之魚 或以壺飧救翳桑之餓 周窮而濟急者多矣

18) 國之爲國以民爲本 王之爲王以法行政 法以公平爲政則 民無冤獄 -중략- 今日紀綱紊亂 法制乖廢 城狐社鼠之流 憑恃權彊 貨賂公行 使孤弱無罪 又陷於不測之坑而 冤結無告

이로움을 잊고, 도끼를 믿고 밭을 베며 마치 무른 땅에 말뚝 박듯 쉽게 하려하니, 왕법이 중한 바는 그 위엄 있는 명령이 더 이상 미칠 바가 없는 것입니다.¹⁹⁾

이렇듯 시골에서는 파리 떼처럼 名利를 추구하며 뇌물을 주고받고, 이익을 좇아 법을 왜곡하며, 도리어 백성의 버리로 삼으니 백성은 본래 목석이 아닐진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고 강변하는 내용이 이어진다. 아울러 劔閣에 사는 쥐놈(鼠參奉)은 농사짓는 일도 근본으로 삼지 않고, 장사하고 판매하는 재물도 없이, 밤낮으로 도적질하는 기랑만을 오로지 하니 詩經의 相鼠라는 시와 같이, 비록 불한당의 무리나 도둑의 부류라도 이러한 놈들보다 지나침이 없을 것임을 피력한다.²⁰⁾ 역시 몰락한 향촌 양반들의 부패상이 잘 반영되어 있음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廳僉知 자신은 대대로 가난하지만 남의 물건에 혐의를 두지 않고, 아래로는 백성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으며, 가을철이 되면 가족을 이끌고 가서 주야로 실새없이 고생하여, 嚴冬을 나기 위해 겨우 닛 섬 닛 말을 얻어 철저히 단속해 둔 양식을 절취 당해 분통하고 억울한데, 살갱이 兪將은 쥐 같은 놈들과 협간하여 거짓을 꾸미고, 뇌물을 주고, 없는 형상을 만들어 속이고 헐뜯어, 이른 바 영장이란 자가 이로움에 사로잡혀, 흉측한 형들을 씌우고 매질을 하여 억울하게 유배되었음을 아뢴다. 아울러 그 동안 어디에도 고하여 알릴 수 없었던 분통함을 토로하며 옥석과 흑백을 올바르게 분별하여 통찰하여 주기를 축수한다.

이에 山君殿下는 소지를 본 후 슬프게 탄식하며, 태평시대의 擊壤歌는 堯 임금의 성덕이요, 南薰曲은 舜 임금의 이상적인 정치임을 토로하며, 자신이 임금이 되어서는 신하들이 공적인 일을 잘 집행하지 못하고, 공이 사를 이기지 못하고, 시골엔 좋은 풍속이 없고, 화살을 한 번 맞아 놀랜 새들처럼 오직 의식과 두려움을 품고, 범망은 매우 느슨하고 영성하여 충심은 사직을 편안히 하지 못

19) 孝治明政之下 么麼之物行凶 憑暴負疆凌弱 假勢欺貧 狐媚貪貨見利忘義 信斧斫足 軟地插扶 王法所重 威令莫及

20) 작품 내용 중에 '속언에 용이 없어진 연못에는 드렁허리와 미꾸라지가 스스로 조롱하며, 호랑이가 떠나간 십산엔 여우와 토끼가 어른이라 칭한다는데, 재물을 훔치고도 적반하장으로 강함을 믿고 흉악무도한 일을 행하는 鼠哥처럼 이름난 자가 또 어디에 있겠는가를 반문하며, 쥐가 시인들의 풍자거리가 되었음을 언급한 내용에서 이를 재 확인할 수 있다.(諺曰 龍亡古澤 鱗鯁自嘲 虎逝深山 狐兔稱長 偷竊財物而 反荷賊杖 恃強行凶 無難打蹴 豈有如劔閣居鼠哥爲名者乎)

하게 됨을 피력한다. 이 역시 당대 사회상의 반영으로 모순된 사회를 비판하고 풍자하는 가운데, 이와 상반되는 이상적인 인물과 통치체제를 염원하는 기대 심리와 作意를 짐작할 수 있다.

그 결과 아래와 같은 죄상을 들어 鼠參奉과 살쟁이 영장, 뇌물을 받은 여우 등 부패한 인물 들을 엄한 중벌과 극형에 처하는 가운데, 이 작품의 대 사회적 인 교훈적인 의미가 부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검각을 만들어 쥐새끼 목에 칼을 씌우고 발에 사슬을 채우고 잡아들여 죄를 묻고, 도주 영장은 뇌물을 받고 법을 왜곡시켜 죄를 범하고 사람들에게 해롭게 하였으니, 우선 사탈관직하고 먼 변경으로 유배 보내고 -중략- 어부나장으로 하여금 쥐놈을 잡아들여 신문하여 체결하고, 영장은 뇌물을 주고받고 남을 해친 죄, 무고한 자를 거짓으로 헐뜯고 멀리 유배 보낸 죄, 鼠參奉은 인간의 재물을 도적질한 죄상을 하나하나 신문하여 일차 형장으로 कै어묻고, 일차 주리를 틀고, 일차 장형으로 마구 치니, 말마다 자복하고 복죄하였다. 특별히 극형을 내려 그 가족을 벗기고, 살을 발라 나눠주고, 여우 등은 훗날 관습의 증거로 삼아 그 무리 새끼들을 북해상에 유배시켰다.²¹⁾

중간자인 무능한 살쟁이 令將의 1차 오판과는 달리 廳僉知의 소지를 본 山君殿下의 정당한 판결을 통해 사건이 극적으로 역전되는 가운데, 대사회적인 각성을 환기시키며 긍정적이며 이상적인 통치자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廳僉知(오달암)에게 명하여 巫峽通判을 삼고, 식량 이천 섬의 상수리와 밤을 주니, 가산이 넉넉해진 가운데 영세토록 본보기로 삼도록 했다는, 假傳적인 요소가 첨가된 후반부 評決을 통해, 작자의 사회적인 관심사와 주제의식이 부각되고 있음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예로부터 성안에 있는 여우같은 소인이나 사당의 쥐와 같이 임금 곁에 알랑거리는 간신들이 시골구석에 침해하여 욕을 보이고, 평민들을 베고 토벌하며 나라의 기강을 깨뜨려 버리고, 낚시밥을 던지면 부르지 않아도 덤벼드는 양교와 같은 무리들처럼, 고을 원님과 결탁하여 한 통속이 되는 것들과 똑같이, 힘 있는

21) 制劍閣鼠漢枷鎖 拿來問罪而 刀州領將受賂 枉法罪犯 賊害人物 爲先削奪官職 極邊遠竄 - 중략 - 使御府拿將 捉來鼠漢 鞠問締結 領將行賂 害物之罪 誣毀無辜 置之流遠之罪 盜竊人間財物之狀 - 訊問 刑問一次 周牢一次 亂杖一次 節節首服 特下極刑 去其皮磔其肉頒賜 狐等臣懲後來之習 其黨雜 流於北海之上

아전들은 뇌물을 행하고 법을 왜곡하여 무단히 그릇된 것을 꾸미니 어찌 쥐류와 다르겠는가?²²⁾

이상을 통해 고찰해 본 바와 같이 <鼠廳傳>은 조선 후기 鄉村社會의 몰락한 양반층 내지 하층민을 상징하는 廳僉知(다람쥐), 부패한 관권과 결탁하여 하층민을 착취하는 봉건 兩班土豪를 의인화한 鼠參奉(쥐)과의 대립 갈등, 무능하고 부패한 양반관료들의 부정과 비리, 불법적인 횡포와 부당한 판결 등 당대 사회의식이 심도 있게 반영된 가운데, 대 사회적인 비판적 기능과 지배층에 대한 각성을 환기시키는 구실을 하는 교훈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보아진다. 나아가 이를 교훈삼아 이상적인 인물과 통치체제를 염원하는 작가의 기대심리가 잘 반영되어 있는 작품으로 小說史的 位相과 價値가 주목되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3. 小說史的 位相과 價値

전술한 바, 이 논문을 통해 처음 소개되는 다람쥐를 주인공으로 하는 한문 본 <鼠廳傳>은 전형적인 鼠類 訟事型 寓話小說로서 독자적인 이본적 특성상 古小說史的 位相이 주목되는 귀중한 문학유산이라 할 수 있다.

우선 유일하게 前進士 徐達增이라는 著作者 기록을 통해 작자와 향유층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작자의 지적 사고와 문학적 역량, 비교적 고급 문장에 속하는 한문 문체 및 문학성에 있어서도 가치가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전술한 바 ‘송사의 발단과 동인-대립 당사자의 갈등 - 송사의 제기 - 판결 1, 2’를 통한 문제해결 양상을 보여주는 ‘冤抑型’과 ‘伸冤型’이 복합된 ‘중복형 구성’으로 치밀하고 긴장감 있게 재구성된 점에서 진일보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기왕에 소개된 전래한 鼠類 설화나 同軌 작품들과 상호 구별되는 사건의 추이와 등장인물의 성격도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며, 주요 서사단락의 구조와 의미에 있어서도 변별되는 작가의 창의적인 구성인 점에서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22) 自古城狐社鼠之流 侵凌鄉曲 誅討小民 打破國綱 陽橋迎吸之輩 締結官長符同 豪吏行賂曲法 武斷飾非 何異於鼠類哉

부연하자면 <까치전>과 같이 판결자를 달리하면서 그 판결 결과가 역전되
는 구성방식으로 작품의 극적 긴장감을 더해주고 있다. 선행된 연구결과와 비
교의 편의를 위해 사건의 발생과정과 해결과정을 수수께끼 구조로 정리해보
면 식량도난 사건의 발생을 물음으로, 판결 1, 2를 과제 해결의 과정(풀이의
과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를 통해 유능하고 비범한 능력을 지
닌 구원자적 목민관을 기대하는 점에서 아래와 같은 <까치전>의 作意와 유사
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작품은 무능한 목민관 아래 독버섯처럼 피어나는 형방 이방 등 아전들의
농간과 횡포 및 거기에 빌붙어 놀아나는 소인배들의 이기주의적 삶의 태도
등 부정부패로 얼룩진 현실을 그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해결해줄 수 있는
영웅 기대심리를 송사사건을 통해 형상화 한 것이라 하겠다.²³⁾

그동안 鼠類 訟事型 寓話小說의 이본에 관해서는 논자들간의 이견이 없지 않
으나 선행연구들 통해 저본의 선후관계와 각 이본의 특성에 대하여 깊이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²⁴⁾ <鼠鼯傳>은 이들 전래한 서류 설화나 <鼠獄記> <鼠
大州傳> <鼠同知傳>과 극히 일부 유사점을 제외하고는 작자의 독창적인 창의
성이 부각된 작품이라 보아진다. 물론 <鼠鼯傳>의 경우, 창작 시기를 구체적으
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작자에 대한 심도 있는 고증이 요구된다.²⁵⁾ 다만 이곳에
서는 그 영향관계 면에서 대략적으로 간기하자면, 우선 사건구성 및 작품 성격

23) 이현홍, 『한국송사소설연구』, 삼지원 1997, 182~184면.

24) 민 찬, 『조선 후기 우화소설 연구』, 124~144면. 신경숙, 「송사형 우화소설」, 『어문논집』
30, 고려대, 1991, 106-108면. 이를 통해 13장본 서대주전은 1913년. 모두 국한문본인 <鼠同
知傳>은 1918년, 구활자본 <鼠大州傳>은 1918년(이상 민 찬, 상계서, 126면, 143면)임을
참조할 수 있다. 16세기 임제의 창작설이 있는 <鼠獄記>의 경우도 18세기 이후로 추정하기
도 한다.(신해진편역, 전계서, 33면)

25) 서론에서 언급한 바 <鼠鼯傳>과 합철된 53면의 監錄을 통해 작자의 이상향을 향한 꿈과
관념세계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조선조 내우외환에 걸친 생활고와 위정자들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현실세계의 불만에서 초현실적인 관념세계를 좇아 미래의 이상사회를 꿈꾸었던
이들 참위서가 억압된 민심의 보상심리와 왕조비판과 지배층의 각성을 환기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鼠鼯傳> 역시 당대 현실세계의 모순과 이상적인 통치체제가 소실
화되어 밀도 있게 반영되고 있다고 보아진다. 작자의 창작심리와 작의, 이와 더불어 이본의
선후관계 및 인용고사와 전고, 문체상의 특징 등에 대해서는 이들의 상호 영향관계를 통해
차후에 그 구체적인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상 현격한 차이가 있긴 하지만 <鼠獄記>에는 80여 종의 균물이 등장하는데 반해, <鼠廳傳>의 경우 40종에 가까운 동물명이 등장하며, <鼠大州傳>과 <鼠同知傳>에 나오는 동일한 인용고사와 전고 및 상소문에서 이두가 사용되고 있는 점 등 일부 상호 유사하게 응용되거나 倣似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²⁶⁾

한편 鄉村社會의 階層 葛藤과 모순되고 부패한 사회상이 심도 있게 반영된 것은 물론 작가의 주제의식이 한층 더 강화되어 있는 점에서도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향촌사회의 계층과 빈부 갈등을 둘러싼 송사문제가 관권과 결탁한 무능하고 모순된 부조리한 판결을 통해, 시골구석의 평민에게까지 침해당하는 당대 사회의 주요 관심사를 소설화하여 이를 부각시키고 풍자 비판하고자 하는 寫實主義的이고 告發文學의 작품인 점에서 조선후기 訟事小說로서의 敘事文學的 位相을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요컨대 전대의 傳奇體 작품들과는 달리 보다 구체적인 당대의 현실적인 사회상과 관심사를 제재로 하여 사건의 발단과 해결방식에 있어서도 因果性을 높임은 물론, 작자의 현실 지향의식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독자들로 하여금 흥미와 교훈적 기능을 배가시키고 있는 점에서 문학의 反映論의 기능과 效用論的인 가치를 증대하고 있다.

4. 結論

본고에서는 새로 발굴된 <鼠廳傳>의 類型的 特性和 意味를 고찰하고, 同軌 작품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小說史的 位相과 價値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다람쥐를 주인공으로 한 徐達增의 <鼠廳傳>은 전형적인 鼠類 訟事型 寓話 小說로서 유일하게 작자가 밝혀진 작품으로, 작자의 독자적인 창의성이 부각된 한문본으로 이본적 특성상 고소설사적 위상이 주목되는 귀중한 문학유산이다.

전술한 바, 편의상 鼠類 訟事型 寓話小說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지만, 사건 구성 및 유형적 특성을 보면, ‘송사의 발단과 동인 - 대립 당사자의 갈등 - 송사의 제기 - 판결 1, 2’를 통한 문제해결 양상을 보여주는 ‘冤抑型’과 ‘伸冤型’을 복합한 중복형 구성으로 독창성 있게 재구성된 점에서 진실보한 작품이라 할

26) 예컨대 판가에 압송된 후 날이 저물어 다음날로 재판을 미루는 부분, 鼠大州가 공훈이 있는 가문임을 들어 변명, 紅腐, 城狐社鼠, 朝三暮四, 鼠竊狗偷, 巴峽(巴州) 蜀道難, 明乃爲賊 賊乃可服, 星火捉來, 石崇, 唐虞時節 潁川水, 涸轍鮒魚 등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작자가 장의 적으로 다양한 고사를 활용하고 있는 점이 특색이다.

수 있다. 그 결과 주요 서사단락의 구조와 의미에 있어서도 작가의 창의성이 부각된 訟事小說로서 중요한 소설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특히 鄉村社會의 階層 葛藤과 社會意識이 심도 있게 반영됨은 물론 작가의 주제의식이 한층 더 강화되어 있는 점에서도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당대 사회의 주요 관심사인 訟事의 문제와 그 해결과정을 소설화하여 鄉村社會의 階層 葛藤과 풍자적이고 비판적인 사회적 의미를 부각시키고자 한 점에서 寫實主義的이고 告發文學的인 조선후기 訟事小說로서의 敘事文學的 位相을 한층 높여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사건의 발단과 해결방식의 因果性, 작자의 현실 지향의식을 부각시킨 결과 독자들로 하여금 긴장감과 흥미유발, 교훈적 기능을 배가시킴으로써 문학의 反映論的 기능과 效用論的인 가치를 증대하고 있다.

본고는 학계에 신 자료인 <鼠鼯傳>의 梗概와 주요 서사단락을 소개하고, 同軌 鼠類 訟事型 寓話小說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事件構成과 類型的 特性, 葛藤樣相과 사회적 의미, 小說史的 位相과 價値를 고찰하고자 한 점에서 그 의의를 찾고자 하였다. 그 결과 작품의 전반적인 특성만을 중점적으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기왕에 소개된 鼠類 訟事型 寓話小說들과의 선후관계 및 이본으로서의 세부적인 제반 특성을 구체적으로 소개할 수 없었다. 아울러 작자에 대한 고증이 병행되지 못했던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지면을 통해 상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작가의 성향과 향유층은 물론 이 작품에 대한 변별적인 특성과 소설사적 위상을 좀더 심도 있게 총체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본고는 향후 작자에 대한 구체적인 고증과 동계 소설들과의 선후관계 및 이본으로서의 변별적인 제반 특성에 대하여 좀더 총체적으로 고찰하기 위한 시론적 성격을 지닌다.

〈참고문헌〉

- 김광순, 『한국의인소설연구』, 새문사, 1987. 338~371면.
- 김윤희, 「우화형 송사소설 연구」, 경희대 교육대학원 논문, 2007.
- 김재환, 『한국 동물우화소설 연구』, 집문당, 1994.
- 김충실, 「송사형 고전소설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1991.
- 민 찬, 『조선후기 우화소설 연구』, 태학사, 1995.
- 민 찬, 「조선후기 우화소설에 투영된 계층의 문제」, 『한국문화』 13, 1992. 209~235면.
- 손병국, 「조선조 우화소설 연구」, 『동악어문논집』 16, 1982. 185~224면.
- 신경숙, 「송사형 우화소설」, 『어문논집』 30. 고려대, 1991. 101~130면.
- 신해진편역, 『서류 송사형 우화소설』, 보고사, 2008.
- 이헌홍, 「송사소설의 사적전개」, 『한국서사문학사의 연구』 IV, 사재동편, 중앙문화사, 1995. 1451~1491면.
- 이헌홍, 『한국송사소설연구』, 삼지원, 1997.
- 정출현, 「동물 우화소설의 작품세계와 그 역사적 전개」, 『고소설사의 제문제』, 성오 소재영교수 환력기념논총, 집문당, 1993.
- 정출현, 「조선후기 우화소설의 사회적 성격」,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1992.
- 정출현, 「조선후기 향촌사회 변동과 우화소설」, 『민족문화사연구』 1, 1981. 162~192면.
- 정학성, 「우화소설연구」, 『국문학연구』 17, 서울대 국문학연구회, 1972.
- 정홍모, 「조선후기 우화소설의 인물형상과 조선후기 향촌사회의 변모」, 『고전문학연구』 5, 1990. 239~259면.
- 주영효, 「서류 우화소설 연구」,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 논문, 1995.
- 최승범 校註, 다람의 소지, 『문학사상』 28, 문학사상사, 1975. 419~423면.
- 한아름, 「서류 우화소설연구」, 서강대 교육대학원 논문, 2006.

【국문초록】

이 논문에서는 새로 발굴된 徐達增의 한문본 <鼠鼯傳>을 학계에 처음 소개하고, 이 작품의 事件構成과 類型的 特性, 鄉村社會의 葛藤樣相과 社會的 意味, 小說史的 位相과 價値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鼠鼯傳>은 전형적인 訟事小說의 유형적 특성을 공유하고 있으면서도 송사의 발단과 해결과정을 보면, 판결 결과가 역전되는 두 번의 판결과정을 통해 극적 긴장감을 더해주는 ‘중복형 구성’(‘冤抑型’+‘伸冤型’), 유일하게 작자가 명기된 독자적인 이본적 특성상 고소설사적 위상이 주목되는 귀중한 문학 유산이다.

이를 통해 당대 鄉村社會의 階層葛藤과 社會意識이 사실적으로 심도 있게 반영됨은 물론 대사회적인 주제의식이 한층 강화되어 있는 점에서, 조선후기 寫實主義的이고 告發文學的인 訟事小說로서의 敘事文學的 位相과 意義를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작자의 창의성과 현실 지향의식이 부각되고 이를 통해 독자들로 하여금 흥미와 교훈적 기능을 더해주는 면에서도 전대의 傳奇體 고전소설들과 달리 문학의 反映論的 기능과 效用論的인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핵심어: 鼠鼯傳, 徐達增, 한문본, 鼠類 訟事型 寓話小說, 訟事小說

【Abstracts】

The Study of Seojeon, Fiction Fable of Rodents Taking Legal Actions

Yu, Gi-ok

This thesis is to introduce for the first time in the academic circles a Seojeon written in Chinese by Seo Dal-jeung and to inquire into the case configuration, the typological characteristics, the aspects of conflict and their significance in the country community, and the status and values in the novel history of the work.

Seojeon has common characteristics of the typical novel of Lawsuit(Lawsuit type fable fictions). In the course of filling a lawsuit and resolution, overlapping constitution("repeated form", "complaining-ending+clearing-false-ending") of the two reversals of judgement add dramatic tension. And it is a valuable literal heritage which attracts our attention to its status in the old novel history in the light of expressly stated its writer.

This work reflects in depth not only the conflicts between classes and the social consciousness of the contemporary community but shows writer's unique sense of the society. So we cannot too overestimate it's status and significance as novel of suit of documentary literature that describes and accuses later Joseon Dynasty society.

Moreover, playing up the writer's creativity and reality-oriented

awareness and adding the reader's interests and moral lesson subsequently show vividly the functions of reflection and values of usefulness of this work.

Key words: Seojeon. Seo Dal-jeung. Lawsuit type. Fable fictions.

유기욱

전북 완주군 삼례읍 후정리 우석대학교 국어교육과

전화: 063-290-1318

E-mail: goyou@woosuk.ac.kr

이 논문은 2009년 12월 30일에 투고되었으며, 2010년 1월 11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0년 2월 10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